

석사학위 논문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주제로 한
유리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유리조형디자인 전공

양 윤 영

2003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주제로 한
유리조형 연구

지도교수 김기라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7월 일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유리조형디자인 전공

양 윤 영

2003

양 윤 영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04 년 7 월 일

심사위원장 김 준용



심사위원 허혜옥



심사위원 김기라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국 문 초 록

신성시되는 이야기를 뜻하는 신화(神話) 중에는 특정한 사회집단 내에서만 전해내려 오면서 그 집단의 내면적 정체성과 욕구를 상징하는 무속 신화가 있다. 제주도 내에서 전래되는 다양한 민간신화들 중에는 ‘칠성 신앙(七星信仰)’과 ‘토산당 사신신앙(蛇神信仰)’으로 대표되는 무속(巫俗)신앙 속에서 그 내용이 전래되고 있는 뱀 상징 무속신화가 있다. 이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는 뱀을 인격화하고 있는 점과 부(富)와 복(福)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한 유형인 무속의례(巫俗儀禮)와 함께 이어져오고 있는 점에서 다른 신화들과는 다른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얻은 이미지를 유리로 조형한 것이다.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인류문화사적인 관점에서의 뱀 상징의 의미와 동서양과 한국내의 뱀 상징의 여러 표현물과 그 의미를 연구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뱀 무속신화의 대표적인 것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뱀 상징 표현물들과의 차이점과 특이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작업에서는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가 담고있는 기복신앙(祈福信仰)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뱀 무속신앙이 거행되는 당(堂)내의 소품중의 하나인 제기(際器)와 촛대의 형상을 모티브로 투명하고 무정형고체(Amorphous Solid)의 특성을 지닌 유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였다. 이 조형물에 뱀 상징 무속신화의 내용과 의미를 이미지화 함으로써 인간의 부(富)와 복(福) 그리고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토속적인 민간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업 방법으로는 형태와 주제에 맞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색유리에 인그레이빙(Engraving)한 다음 재가열한 후 투명유리를 덧씌우는 블로잉(Blowing)기법 중 그랄(Graal)기법과 색유리 및 투명유리에 고화도인 파라다이스안료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그려넣고 재가열한 후 투명유리를 덧씌우는 파라다이스페인팅(Paradise Painting)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작품은 제주도의 화산암재(火山岩滓)인 스큐리아(Scoria)를 이용한 블로잉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민간신화가 문화자원의 하나로서 생명력을 얻게 되어 대중적인 문화콘텐츠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간신화나 전래풍습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유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소개하는 본 연구자의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본 론	4
1. 뱀 상징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4
2. 뱀 상징의 표현물	5
1) 서양의 뱀 상징	5
2) 동양의 뱀 상징	9
3) 한국의 뱀 상징	11
3.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	13
III. 연구 작품	19
IV. 결 론	51
□ 참고 문헌	52
□ ABSTRACT	53

I. 서론

1. 연구 목적

인간은 눈에 보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세계에만 살아 온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존재성과 함께 살아 온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신화(神話)이며, 이 신화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를 상징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아득한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민간신화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데, 그 중의 하나가 ‘칠성신앙(七星信仰)’과 ‘토산당 사신신앙(蛇神信仰)’으로 대표되는 무속(巫俗)신앙 속에서 전래되고 있는 뱀 상징 신화이다. 칠성신앙은 집안의 곡간이나 집 뒷결의 으스스한 곳에 모시는 신앙이며, 토산당 사신신앙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신당(神堂)에서 모시는 신앙으로 모두 뱀신을 모시며 부(富)와 복(福)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한 유형이다.¹⁾

제주도 뱀 신앙의 특징은 신화나 설화(舌話)의 내용을 통하여 뱀을 인격화하고 상징화 시켜 뱀신을 섬긴다는 점과 뱀신이 주로 여신 또는 할망(할머니)으로 모셔짐으로써 뱀신을 모시는 지역의 여자가 혼인을 하면 뱀신도 따라다닌다는 속설로 인하여 뱀 신앙이 제주도내 곳곳에 퍼진 토속신앙이라는 점이다.²⁾

본 연구자는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의 향토적 성격과 기복신앙(祈福信仰)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얻은

1) 제주 사신(蛇神)신앙에 대한 小考, 탁명환, 한국문화인류학 제 10 집, 1978

2) 제주도의 뱀신앙, 진성기, 한국문화인류학 제 10 집, 1978

이미지를 투명하고 무정형고체(Amorphous Solid)의 특성을 지닌 유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사라져가고 있는 전래 무속신화를 유리조형작품으로 되살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뱀 상징의 인류문화사적인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뱀과 인류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서양과 동양의 뱀 상징의 표현물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셋째, 한국의 뱀 상징의 표현물과 그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섬문화를 대표하는 제주도의 뱀 상징 의미와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대표하는 칠성신앙과 토산당 뱀신앙을 연구함으로써 표현하려는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로 참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위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만이 가지고 있는 향토적이고 무속적인 특성의 이미지를 본인의 작품 속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도의 뱀신들 중 하나인 물할망(물의 여신이라는 뜻임)의 이미지는 유리의 물성(物性)인 고체 상태의

유리를 가열하면 점차 점도가 감소해서 액체 상태로 진행되는 성질과 결합될 수 있는 점을 착안하였다. 또한 유리기형물의 표면에 뱀 무속신화의 상징적 이미지를 페인팅 및 조각을 하고 투명한 유리로 다시 덮어 씌워 유리와 유리를 중첩 시킴으로써 무속신화의 신비감과 인간의 내면적 욕구를 내포하고 있는 무속신앙의 신비로움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II. 본 론

1. 뱀 상징의 인류문화사적 의미

뱀(Snake)은 생물학적으로 뱀목(Squamata) 뱀아목(Ophidia)에 속하는 네 다리가 퇴화된(진화론자의 주장) 파충류이다. 이 뱀은 전 세계적으로 2500 여종이 있고 우리나라에선 16 종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뱀은 극지(極地)를 제외한 전 지구에 분포되어 일찍부터 성경을 비롯한 많은 족속의 전설에 뱀 이야기가 등장되었고 토속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³⁾

성경속의 유대인들에게는 뱀은 하나님과 선(善)을 대항하는 사탄(악마)으로 상징되고(창 3:1, 3:13), 조로아스타교에서는 사악한 존재로, 노르웨이인들은 불길로, 폴란드의 술레지엔 지방에서는 길조(吉兆)이긴 하지만 불행의 전조(前兆)로 생각했다. 그러나 고대 가나안인들은 뱀을 여신(女神)으로 섬겼고, 고대 로마나 중세유럽, 아라비아, 남아프리카의 반투 등에서는 행복과 길조로, 캄보디아에서는 불사(不死)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 외 많은 농경사회에서는 수신(水神), 우신(雨神), 농작물의 신으로,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의 환상으로 숭배되었다. 인도 케랄라주의 드라비다족은 뱀이 비와 풍작과 생식력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 불임여성들이 뱀 석상(石像)에게 수태를 비는 풍습이 있고, 특히 코브라를 신성시 한다고 한다. 일본의 아마미(奄美)지방에서는 독을 지닌 뱀의 한 종류인 반시뱀을 수신으로 섬기고, 멕시코 신화에선 날개 달린 뱀 신인 퀘찰코아톤이 풍우와 옥수수 농사를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다. 심지어 뱀을 상업의 신, 의학의 신으로 관련시켜 WHO(세계보건기구)의 마크도

3) <http://www.yesu.kimc.net/30baem.htm>(성경의 뱀 메시지, 심상필, 2001)

뱀의 모양이 디자인되어 있다. 그 외 뱀이 재화와 보물을 지킨다는 전설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각지에 퍼져 있다. 이런 세계의 뱀 문화의 기원들은 고대의 농경사회에서부터 인간과 뱀이 땅이란 한 무대에서 공존해 살아왔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⁴⁾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뱀 만큼 지역이나 문화권에 따라 서로 극단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없을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선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호신으로 모신 것에 반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주로 악마의 사자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농경 문화권과 유목문화권의 영향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벼농사문화권에서는 물과 땅의 비옥함, 재생과 풍요를 상징하는 뱀을 신앙의 형태로까지 변천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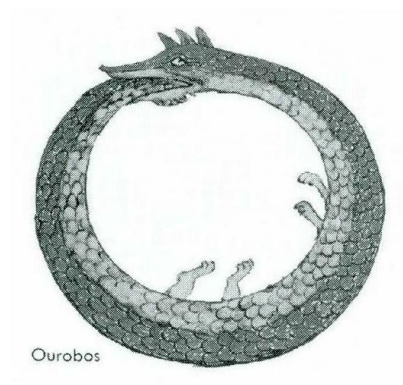
2. 뱀 상징의 표현물

1) 서양의 뱀 상징

(1) 그리스와 이집트의 부적 우로보로스(B.C. 3)



<그림 1. 우로보로스 형상 1>



<그림 2. 우로보로스 형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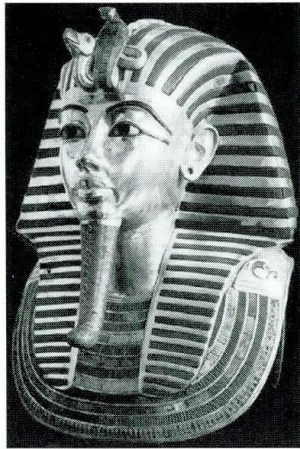
4) <http://www.yesu.kimc.net/30baem.htm>(성경의 뱀 메시지, 심상필, 2001)

우로보로스는 ‘자기 꼬리를 먹는 것’이라는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의 연금술사들이 그렸던 괴물의 이름에서 연유하고 있다. 제 꼬리를 삼키고 있는 뱀인 우주사(宇宙蛇) 우로보로스는 원과 뱀의 상징적 표현을 하나로 합쳐 불사조와 동급인 물원소로서, 총체성, 재탄생, 불멸성, 그리고 존재의 순환을 나타낸다.⁵⁾ 또한 우로보로스는 바퀴처럼 끝없이 회전하는 원형적 이미지로서의 영원 무궁성의 갈망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꼬리를 입에 문 뱀은 불교에서는 윤회의 바퀴이며, 이집트에서는 우주의 원이자 태양신이 통과하는 길이며, 힌두교에서는 윤회의 바퀴이자 잠재 에너지라는 의미로서 '쿤달리니'(척추 밑 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생명의 힘)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태초에 만물은 하나의 알과 같아서, 뱀 즉, 영(靈)이 그 주위를 마치 단단한 끈처럼 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⁶⁾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뱀 상징의 대표인 우로보로스는 우주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순환재생을 의미하는 영원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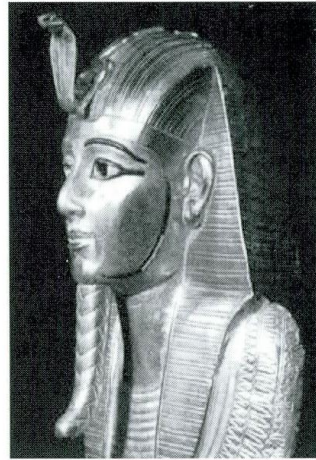
5) 데이비드 폰테너, 최승자(역),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1998

6) 진 구퍼, 이윤기(역), <그림으로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까치글방, 2000

(2) 이집트 투탕카멘 왕과 프수세네스 1 세의 황금 마스크



<그림 3. 투탕카멘왕의 황금마스크 >



<그림 4. 프수세네스 1 세의 황금마스크 >

고대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에는 가발과 함께 여러 가지 왕관이 나타났는데, 왕은 권위를 나타내는 뱀머리 모양의 장식인 우라에우스(uraeus)와 독수리로 장식한 관을 썼고, 여왕은 독수리 날개와 뱀머리로 장식한 관(diadem)을 썼다. 우라에우스는 코브라 여신 와제트(Wadjet)를 상징화한 코브라 모양의 장식으로 파라오를 보호해 주는 신으로 ‘열려진 제 3의 눈’을 상징하기도 한다.⁷⁾ 이집트 왕국의 유물 중 코브라가 정면을 장식하고 있는 투탕카멘 왕(신왕국 제 18 왕조, B.C. 1336-1327, 이집트)의 황금마스크와 프수세네스 1 세(신왕국 이후 제 21 왕조, B.C. 1039-991, 이집트)의 황금마스크가 왕권의 상징이었다는 데서 그들의 뱀 숭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⁸⁾

7) 멜리사리틀필드 애플게이트, 최용훈(역), <벽화로 보는 이집트 신화>, 해바라기, 2001

8) 권삼윤, <문명은 디자인이다>, 김영사, 2001

(3) 멕시코의 치첸이차 마야 문물인 ‘쿠쿨칸’ 피라미드의 정면으로 난 계단과 난간의 뱀조각



<그림 5. 쿠쿨칸 피라미드의 입구 사진>



<그림 6. 쿠쿨칸 피라미드의 전경 사진>

멕시코의 마야문명권에서도 뱀은 숭배의 대상이었다. 유카탄반도의 치첸이차에는 ‘쿠쿨칸’ (마야어로 뱀이란 뜻)이란 이름의 피라미드가 있고, 멕시코시티 교외의 테오티우아칸 유적엔 목에 깃털을 단 뱀(‘케찰코아틀’이라 불림)이 조각돼 있다. 이들에게 있어 뱀은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신이었다. 24m 높이의 쿠쿨칸 피라미드는 뱀에 대한 마야인들의 극진한 애정을 건축적으로 형상화 시켜 놓았다.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의 입구 양쪽에 커다란 뱀 머리 조각을 세워놓았을 뿐 아니라 뱀 몸통으로 상승하는 돌난간을 만들고, 꼬리로는 정상의 계단 들보를 꾸몄다. 또 태양이 피라미드 위에 서게 되는 매년 7 월 16 일 오후 5 시에 두 마리의 뱀이 춤을 추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 그날이 오면 그 환상의 장면을 보겠다며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피라미드 앞 광장은 만원을 이룬다고 한다.⁹⁾

이 밖에도 서양의 뱀 상징 표현물은 매장용 항아리에 뱀이 그려진 메

9) 권삼윤, <문명은 디자인이다>, 김영사, 2001

소포타미아 토기(B.C.13-12), 이탈리아 바티칸 성당의 천장화인 ‘낙원에서
의 추방’ 장면 및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풍요의 신이었던 헤르메
스가 지니고 다닌 뱀 장식의 지팡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동양의 뱀 상징

(1)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나가(Naga, 뱀)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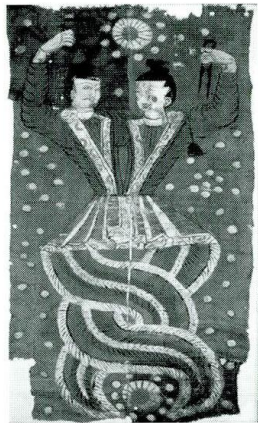


<그림 7. 앙코르와트의 나가 뱀 조각상 1> <그림 8. 앙코르와트의 나가 뱀 조각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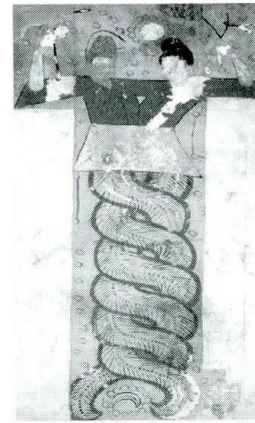
캄보디아 일대를 지배했던 크메르 왕조가 세운 왕실사원인 앙코르와트 유적에는 도처에 뱀과 관련된 조각상들이 있다. 또한 뱀이 이 앙코르와트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 가장 확실한 물증은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몇 개의 커다란 ‘나가(Naga)’ 조각이다. 나가란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코브라로 강과 비(雨)를 주재하는 앙코르왕국의 최고신이었다. 뱀이라면 징그럽다는 생각이 앞설 텐데 나가 조각은 오히려 다정스럽기까지 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벼농사를 일구었던 크메르인들은 나가가 벼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비옥한 땅을 선사한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손을 놓고 풍년이 들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앙코르 왕조

가 들어선 11 세기 중엽, 도성 좌우에 거대한 ‘바라이’ (인공저수지)를 축조하여 물 걱정을 없앴고 3 모작까지 성공했다. 그 힘은 바로 나가에서 왔다고 생각한 그들은 거대한 앙코르와트를 건립하면서 나가 조각을 그 입구에 세운 것이었다. 그리고 앙코르(Angkor)란 말도 산스크리트어로 도시를 뜻하는 ‘나가라(Nagara)’에서 따왔다. 나가라는 ‘나가(Naga· 뱀)’와 ‘라(Ra· 산다)’의 합성어이므로 결국은 뱀이 사는 곳이란 뜻이다. 이만큼 앙코르는 뱀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¹⁰⁾

(2) 중국 아스타 고분(7~8 세기)



<그림 9. 아스타고분 복희여와도 앞면>



<그림 10. 아스타고분 복희여와도 뒷면>

아스타 고분(7~8 세기)에 나타난 중국신화를 표현한 복희여와도의 복희와 여와는 몸은 뱀과 같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해와 달과 같은 큰 성덕을 베풀었다고 전하는 중국의 전설적 인물로, 3

10) 권삼윤, < 문명은 디자인이다>, 김영사, 2001

황 5 제(三皇五帝) 중 최고의 제왕으로 여겨지는 복희씨와 일월을 주관하는 창조신으로서 여와씨의 신격이 융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함께 꼬인 뱀모양의 좌우대칭 구성은 복희(男神, 日神)와 여와(女神, 月神)에 의한 천지개벽과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후한대(後漢代)부터 조형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믿어진다.¹¹⁾ 세상을 만들어낸 창조신을 뱀의 형상으로 나타낸 것을 통하여 우리는 뱀이 천지개벽과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영생과 다산, 불사를 뜻하는 동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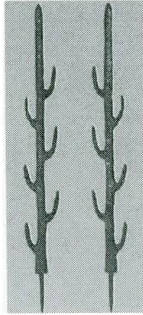
이 밖에도 동양의 뱀 상징 표현물은 석제 용기 표면에 뱀이 조각된 인더스문명 유물(B.C. 2500-2000), 7 개의 머리를 가진 무차린다용왕(코브라)에 보호받고 있는 타이의 석조 불상(10 세기) 및 금동으로 제작된 인도의 생명의 나무(16 세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한국의 뱀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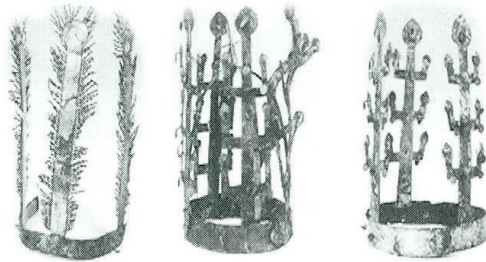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뱀을 수호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경우가 여러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뱀은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 그것이 죽음으로부터 매번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 한 듯 하다. 그리고 뱀은 주로 먹는 것과 관계되는 삶의 아주 원초적인 기능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뱀에 대한 민속신앙에는 ‘업’이라는 것이 있다. 업은 흔히 ‘집안 살림이 그 덕이나 복으로 늘어 가는 것으로 믿고 소중이 여기는 동물이나 사람’이라고 한다. 또 ‘업단지’라고 해서

11) 국립중앙박물관, <이달의문화재>, 2001.2

살림을 늘게 해 주는 신을 모신 단지로서 주로 쌀이나 돈을 넣는데, 공간에 모시기도 하고 뒤쪽에 짚주저리(짚을 모아 대충 엮어서 만든 덮개용 물건)를 씌운 엽가리를 모시기도 한다.¹²⁾



<그림 11. 칠지도>



경북의성출토 금동관 대구비산동출토 금동관 대구비산동출토 금동관

<그림 12. 금동관의 여러 유형>

역사적으로 나타난 뱀 상징 신화의 일례는 백제왕이 일본국에 하사한 것으로 현재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칠지도(七枝刀)에 나타난 일곱 가지 나무와 뱀 문양이다. 이 일곱가지 나무와 뱀 문양은 일곱 머리의 뱀신을 상징화 시킨 것이라고 해석이 되었다. 일곱개의 별에서 온 하늘의 신들, 그리고 그들이 지구의 야생여성을 취해 관계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 신화의 비밀스런 내용이 바로 일곱 머리 뱀신, 일곱 가지의 나무, 칠성신을 형상화한 문양 속에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다. 신라의 왕관과 가야 시대의 왕관을 보면 일곱 가지의 문양이 정면에 세워져 있고 옆쪽에는 나무끝에 앉아 있는 새가 조각되어 있다. 이 조각 역시 인류의 조상 칠성신을 상징화 시켜 왕권이 하늘로부터 이어졌고 왕이 그들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백제의 칠지도는 우리가 일곱 개의 별에서 온 하늘의 신, 칠성신들의 후손들이며 이 사실을

12) http://www.minfortune.net/minsok/c_snake2.html

칠지도에 상징화 시키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로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¹³⁾

이 밖에 우리나라의 뱀 상징 표현물은 두마리의 뱀이 서로 감겨져 매듭을 이루어 교합(交合), 즉 탄생을 의미하는 형태를 상징하는 고구려 고분 벽화 삼실총의 교사도(交蛇圖)와 고구려 삼실총 제 3 실 동벽 장사도(壯士圖)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

제주도의 뱀 상징 신화는 제주도의 민간 토속신앙 속에서 전래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무속신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속신앙은 일반적으로 정령(精靈)이나 영혼을 인정하는 애니미즘(Animism)과 원시종교의 기술적 방면으로서의 주술(呪術), 정령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금기(禁忌), 민족의 선조를 동·식물이라고 생각하는 토테미즘(Totemism), 그리고 이러한 것을 숭배하고 제사하고 신화를 낳는 여러가지 의식을 말한다.¹⁴⁾

제주신화는 거의 직업적인 무속집행자들에 의해 구전되어 온 무속신화로 많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지역에 일반 문사들에 의해 수집, 정리, 체계화된 문헌신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주인들의 원형적 사고방식의 결정체로서의 신화 형성은 거의 전적으로 무속신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¹⁵⁾

13) 빈철구, <신들의 암호>, 넥서스 BOOKS, 2001

14) 강원도 삼척시청, <삼척시지>, 조양출판사, 1997

15) 양영수, <제주신화와 중국의 비교연구>, 제주도연구 제 18 집, 2000

제주도는 한라산의 산과 해안으로 둘러싸인 섬지역으로 이러한 자연조건하에서 살아 온 제주민의 삶 속에는 다양한 신앙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당신앙(堂信仰)과 칠성신앙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당신앙은 제주도의 신당(神堂)을 말하는 데 제주도에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신당이 300 여군 데나 있다. 또한 칠성신앙은 안칠성(內七星)과 밖칠성(外七星, 밋칠성이라고도 함)으로 불리는 데, 안칠성은 집안의 곡간에 그리고 밖칠성은 가옥 밖이나 집안의 으스스한 곳에 상징화된 뱀신을 모시는 무속신앙을 말한다. 이 칠성신앙은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뱀 신앙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토산당 사신신앙(蛇神信仰)과 함께 제주도 민간신앙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칠성신앙은 뱀 신화를 모태로 하고 있는 데, 제주도의 대표적인 무가(巫歌) 중의 하나인 ‘칠성본(七星本)풀이’¹⁶⁾에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옛날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이 부부가 되어 천하거부로 살았으나 50 살이 되어도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부처님에게 원불수륙(願佛水陸)을 드려 딸을 얻었다. 딸이 일곱 살 나던 해에 아버지는 천하공사, 어머니는 지하공사를 살려 가며, 딸을 살창에 가두어 두고, 하녀에게 부탁을 하고 떠났다. 살창을 빠져 나온 아기씨는 길을 잃고 두 이레 열 나흘을 울며, 사경을 헤맨다. 하녀는 서신을 띄어 아기씨가 집을 나갔음을 부모에게 알린다.

대사 중이 아기씨를 거두어 장나라에 들어오고, 돌아 온 부모는 사방으로 아기씨를 찾는다. 대사 중은 아기씨를 장설룡 대감집 문의 광돌에

16) 칠성본풀이 - 제주도의 무당굿에서 삼방이 노래하는 부신(富神)의 신화인 동시에 그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제차(祭次)의 이름이다. <http://ftp.buddhism.org/Korean/장경각/포교/포교14.HW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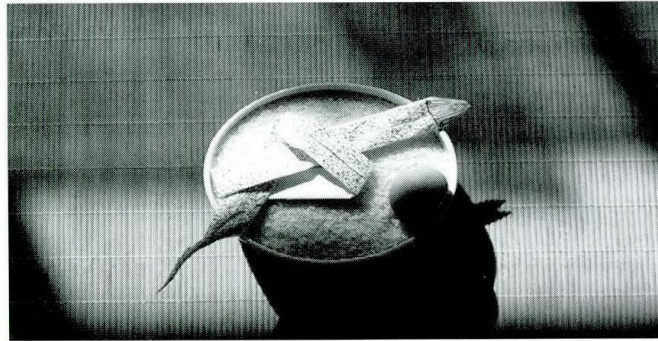
파묻어두고, 대감에게 알리고 달아난다. 아기씨를 찾고 보니, 아기씨는 이미 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화가 난 부모는 아기씨를 무쇠석함에 넣고 동해 바다로 띄어 버린다. 석함은 바다에 떠서 제주 함덕 서모봉 앞의 썩은개로 올랐다. 이때 함덕리에는 일곱 잠수(海女)가 살았는데, 이들이 석함을 발견하고 서로 자기가 주웠다고 다툰다.

어부 송첨지 중재로 석함 속의 것을 나누기로 하고 열어보니, 청구렁이, 흑구렁이, 알롱달롱 아기뱀들이 들어 있었다. 이 뱀들은 동서로 던져 버리니, 일곱 잠수와 송첨지는 눈에 눈병, 가슴에 윗병이 들어 사경을 헤맨다. 무녀(巫女)에게 점을 치니, 타국에서 온 신령을 박대한 죄를 지었으니, ‘칠성새남굿’¹⁷⁾ 을 하라고 한다. 칠성새남굿을 하였더니 이들 잠수와 어부는 모두 천하거부가 되었고, 이들은 서모오름에 칠성당을 세웠고, 집집마다 위하게 되니 함덕리는 부촌이 되었다.

이 칠성신들은 도성안에 들어와 가락천 물길을 따라 칠성골 송대정 집문 앞에 누웠더니, 그 부인이 “나에게 내린 조상이면 우리집으로 오십시오.”하며 치마로 싸서 고팡에 모셨더니 천하거부가 되었다. 하루는 칠성신이 <배부른동산에>에 누어 있는데, 관원이 지나가다 이들 뱀을 보고 더럽다고 침을 뱉었는데, 그날부터 구감중에 걸려 답답 민망하여 신녀를 불러 점을 치니, 타국에서 온 신령을 박대한 죄이므로 <전남새굿>을 하라 하니, <칠성새남> 굿을 하였고, 칠성신은 대접을 받아 죄를 풀어 주었다. 그 후 이곳은 신이 대접을 받아 배가 불렀으므로 <배부른동산>이라고 했다. 이 칠성신들은 모두 헤어져 여러 곳을 관장하는 신들이 되었는데, 1 녀는 추수할망(穀神, 農耕神), 2 녀는 관청할망(官廳守護神), 3 녀는 옥

17) 칠성새남굿 - 뱀신(蛇神)인 칠성에게 걸린 병을 치료하는 제주도 무당굿의 하나이다.
http://www.ugasa.net/ugasa_study/06_0203.htm

할망(刑罰, 治病神), 4 녀는 과원할망(果園守護神), 5 녀는 창고할망(倉庫守護神), 6 녀는 관청못할망(水神), 7 녀는 억대부군칠성(밭칠성, 富神, 農耕神), 어머니는 열두시만국신(안칠성, 穀神, 農耕神)이 되었다.’¹⁸⁾



<그림 13. 칠성 새남굿 때 쓰는 신체(神體)인 ‘칠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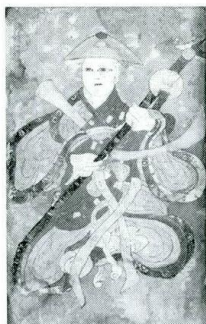
칠성본(七星本)풀이에 나타난 뱀신은 집안 조상신으로 모시는 안칠성과 밭칠성이라는 칠성신이다. 칠성본(七星本)풀이에 나타난 ‘칠성’은 곡물신 또는 재물의 신으로 관념되는 농경신이다. 제주도의 ‘밭칠성’은 육지의 ‘엮’에 해당하는 사신(구렁이)과 유사하며, 이 사신숭배(蛇神崇拜)는 뱀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뱀의 정령, 즉 비실재의 사신숭배로 볼 수 있다.¹⁹⁾ 그래서 뱀신의 신체(神體)도 다양스러워 수목, 암석, 신의(神依), 신기(神旗)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이것들이 단순한 어느 하나거나 때로는 서로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뱀신을 인격화하여 대개 여신으로 그리고 ‘할망’(할머니)으로 모셔 받들어졌다고 한다. 여기에서 ‘할망’이란 여성신격에 대한 호칭이다. 이 뱀신인 ‘할망’은 ‘뒷할망’, ‘물할망’, ‘칠성할망’, ‘안칠성할망’, ‘밭칠성할망’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²⁰⁾

18) 제주국립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19) 제주국립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20) 진성기, 제주도의 뱀신앙, 한국문화인류학 제 10 집, 1978

당신앙과 칠성신앙 이외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뱀을 몸에 휘감은 신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제주 내왓당 무신도(巫神圖)이다. 내왓당(川外堂)은 제주시 용담동을 가로지르는 한천(漢川)옆에 있던 신당(神堂)으로 고종 19년(1882)에 헐리었다. 여기에는 당목(堂木)에 지전(紙錢), 물색(염색한 옷감)을 걸어 신체(神體)를 삼는 도내(道內)의 다른 당(堂)들과는 달리 열두위(位)의 신(神)의 모습을 그려 봉안하였다. 이 신들은 ‘내왓당 본풀이’에 나오는 당북쪽의 제석천왕 마노리(帝釋位), 어모라원망님(冤望位), 수량상태자노라(水靈上太子=水靈位)와 서쪽의 내외천자도마노라(天子位), 새금상감찰 지방관(監察位), 상사대왕(相思位), 중전대부인(中殿位), 정절상농군(相軍位), 내외불도마노라, 자홍이 아기씨(紅兒位) 그리고 북쪽의 이 당(神木)을 맨 심방선생 등이 그들이다. 현재는 심방선생들을 제외한 앞의 9위와 본궁위(本宮位) 등 10 폭만 남아 있다. 이 무신도는 무속(巫俗)과 뱀 신앙이 두드러졌던 제주도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려진 것으로서, 삼색(빨강, 노랑, 초록(또는 남색))의 화려한 옷을 입은 신들의 얼굴 표정, 부채를 잡은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금방이라도 그들의 권능과 영력(靈力)이 시작될 듯한 생생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²¹⁾



<그림 14.무신도 중 帝釋位>



<그림 15.무신도 중 相思位>



<그림 16.무신도 중 紅兒位>

21) 제주국립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칠성신앙은 제주민가에서 전래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무속신화 중에서도 뱀 상징을 통한 인간의 부(富)와 복(福)을 기원한 독특한 전통적인 민간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주의 뱀 상징 무속신화는 민중의 기복신앙(祈福信仰)에 바탕을 둔 무속의례에서 나온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II. 연구 작품

[작품 1] 안칠성(內七星)과 밖칠성(外七星)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인 칠성신화에서 주인공인 안칠성과 그녀의 막내딸인 밖칠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이야기에서 그녀들은 뱀으로 나타나어 지는 데, 뱀신은 재물을 수호하는 신이다. 제주도의 뱀 무속신화를 끄집어 내어 작업을 하고자 하였을 때, 제주도내에서는 뱀과 관련된 예술적 조형물이 뱀을 몸에 휘감은 신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제주도의 내왓당 무신도(巫神圖)(II.본론 중 그림 14,15 및 16 참조)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본인은 외국의 상징신화를 표현한 조형물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나가 뱀조각상 (II.본론 중 그림 7 과 8 참조)과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의 황금마스크(II.본론 중 그림 3 참조)의 황금 뱀 장식에서 조형작업의 모티브를 얻었다. 신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액화상태의 유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부를 수호하는 신의 느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색깔의 반짝이가루를 붙였다. 그리고 제단(祭壇)을 연상한 단(壇)을 만들어 뱀신을 올려 놓았다.

- 제작방법 -

1. 뱀의 형상

- ① 펀티 파이프(Punty Pipe) 끝을 글로리홀(Glory Hole)에서 가열한다.

- ② 용해로(Furnance)에서 액화상태인 투명유리를 말아준다.
- ③ ②의 덩어리유리(Solid Glass)를 길게 뽑으면서 뱀모양으로 만들어 주는데, 기물이 식지 않도록 약 1,250°C 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글로리홀에서 열처리를 하면서 만들어준다.
- ④ 완성된 기물을 펀티 파이프에서 떼어내어 서냉가마(Annealer)에 넣는다.
- ⑤ 서냉되어 나온 기물을 연마하고, 그 위에 반짝이 가루를 투명 접착제에 개어서 붙인다.

2. 단(壇)의 형상

- ① 펀티 파이프 끝을 가열한다.
- ② 용해로에서 유리를 말아 모양을 정리하고 그 위에 검정색유리가루(Kugler Powder. K-95)를 체를 사용하여 골고루 뿌려준다.
- ③ 위의 방법으로 두번을 반복 한다.
- ④ 검정색유리 덩어리가 된 기물을 반구(半球)형태로 만들어준다.
- ⑤ 반구 형태가 된 기물에 투명유리를 덧붙여 굽을 만든다.
- ⑥ 서냉가마에서 서냉 시킨다.
- ⑦ 서냉되어 나온 기물위에 뱀상징 무속신화 밑그림을 그려서 다이아몬드 휠(Diamond Wheel)이 달려있는 핸드피스(Handpiece)를 사용하여 그려낸다.

[작품 1] 안칠성(內七星)과 밖칠성(外七星)



15 × 15 × 21cm(좌), 13 × 13 × 18cm(우) / Blowing / 2003

[작품 2] 여인들의 신전

[작품 3] 제주의 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제주목 풍속조를 보면 ‘제주 풍속에 대체로 산, 숲, 냇물, 연못, 언덕, 물가, 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다 고루 신당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이 신독(新籙)을 받들고 나희(儺戲)를 행한다’ 라고 나와 있다. 당(堂)에는 지전, 물색, 명실이 걸려 당나무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런 당은 마을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신의 집이다. [작품 2] [작품 3]은 이 신의 집 형태에 뱀 상징 무속신화를 표현한 제기(祭器)를 설치하여 인간의 부(富)와 복(福) 그리고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보장된 몇 안되는 영역인 무속세계와 뱀 상징 무속신화를 동시에 표현해 보고자 한 것이다

[작품 3]에서 검은 색으로 제작되어 진 제기의 형태는 조선시대 백자 제기에서부터 내려와 현재에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기형태를 참고하였다. 그 위에 그랄(Graal)기법을 사용하여 부(富)와 복(福)을 기원하는 숭배의식을 치르는 이미지를 표현한 용기(容器)를 올려 놓았다. 그 용기 겉면에 표현된 이미지는 제주도의 내왓당 무신도(巫神圖) (II.본론 3.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 중 그림 14,15 및 16 참조)의 여러 신들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의 바탕을 이루는 검정색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와 토착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고유한 색체계인 오방(五方)색을 기초로 하였다. 고구려의 강서대묘

고분벽화인 사신도의 북쪽방향에 현무도가 그려져 있는 데 북쪽은 오방색에서 검정색을 뜻한다. 그리고 검정색은 수(水)를 뜻하기도 한다. 농경시대 때에는 물을 잘 다스리게 되면 풍작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풍작은 곧 부(富)와 재물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연결성이 지어진 검정색을 제기의 바탕색으로 처리함으로써 부(富)와 복(福)을 상징하는 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용기에 표현되어진 것은 제주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뱀으로 상징되어지며 조선조 고종때 없어진 내왓당이라는 큰 당에서 모셔진 무신도를 모티브로 하여 그려 보고자 하였다.

- 인그레이빙(Engraving) 을 이용한 그랄(Graal)의 제작방법 -

- ① 블로잉(Blowing)작업으로 검정색과 흰색의 유리구를 한 개씩 만든다.
- ② 검정색 유리구와 흰색 유리구의 양쪽 끝부분을 붙인다음 흰색 유리구의 블로우파이프를 분리시킨 후 흰색 유리구를 검정색 유리구 위에 뒤집어 쥌운다.
- ③ 마버(Marver)에서 타원구 형태의 모양으로 정리하여, 글로리 홀(Glory Hole)에서 가열한 후 블로우파이프에서 분리하여 서냉가마에 넣는다.
- ④ 서냉된 기물에다 샌드블라스팅(Sandblasting)기법과 다이아몬드 휠이 달려있는 핸드피스(Handpiece)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 ⑤ 표현이 완성된 타원구 형태의 기물을 전기가마에 넣어서 아래의 온도로 올린다.

단계	Step 1	2	3	4	5	6	7
온도(°C)	100	300	500	520	520	550	550
시간	02:30	01:00	02:00	00:01	00:14	00:15	00:10

- ⑥ 550°C 에서 기물을 픽업(Pick Up)하여 블로잉으로 원하는 기(器) 형태를 만든다.
- ⑦ 펀티(Punty)를 붙여 블로우파이프에서 분리시킨다.
- ⑧ ‘U’자형의 보울(Bowl) 형태로 만든다.
- ⑨ 펀티에서 분리시킨 완성된 보울(Bowl)을 서냉한다.

[작품 2] 여인들의 신전



93 × 65 × 131cm / Blowing / 2003

[작품 3] 제주의 신



17 × 17 × 25cm(중) / Blowing / 2004

[작품 4] 여인들의 기원(祈願)

기원을 드릴 때 빠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을 밝히는 초이다. 이 초는 촛대에 꽂아서 기원을 드려야 안정감이 있게 된다. 촛대는 금속, 도자, 목기 등 다양한 재료와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본 작품에서는 유리와 금속을 이용한 촛대로 표현하였다. 촛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리부분에 여신으로 상징화된 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칠성뱀신들을 표현하였다. 서로의 기(氣)를 모아서 제주인의 부(富)와 복(福)과 생명력을 높여 주려는 것이다. 제주의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현무암돌과 흙을 상징하는 검은색 그리고 화산암재(化山岩滓)인 스코리아(Scoria)를 상징하는 색인 갈색을 파라다이스 페인팅(Paradise Painting)으로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제주의 기(氣)와 제주의 뱀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제작되어진 유리접시 형태는 촛대 장식으로서 유리접시 앞쪽에 초를 꽂아 촛불을 밝히면 부(富)와 복(福)의 여신인 그녀들이 기원을 이루어 주는 형상을 의미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 파라다이스 페인팅(Paradise Painting)을 이용한 블로잉 제작방법 -

- ① 블로잉(Blowing)으로 만들어진 유리구에다 고화도 안료인 파라다이스페인팅을 사용하여 뱀상징 그림을 그려 넣는다.
- ② 그림이 그려진 기물을 24 시간이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린다.
- ③ 블로우파이프(Blow Pipe)에서 분리하면서 생긴 기물입구 단면의 크기를 쥌다.

- ④ 말린 기물을 픽업가마에 넣고 아래의 온도로 프로그램 1 에 세팅하여 예열시킨다.

단계	Step 1	2	3	4	5
온도(°C)	100	300	500	520	520
시간	04:30	01:00	02:00	00:01	00:14

- ⑤ 가마에 있는 기물을 픽업하기 전에 픽업가마 온도를 한번 더 프로그램 2 에 세팅하여 550°C 까지 올려준다.

단계	Step 1	2
온도(°C)	550	550
시간	00:01	00:15

- ⑥ 가마온도가 올라가는 15 분 동안 ③단계에서 생긴 유리구의 단면과 맞물릴 수 있는 형태의 유리를 만들어 가마온도가 550°C 가 되었을 때 기물을 픽업한다.
- ⑦ 글로리홀에서 서서히 가열한 후 기물이 블로우파이프에 잘 접촉되도록 마버링(Marvering)작업을 한다.
- ⑧ 마버링으로 형태를 만든 유리기물을 액화상태인 투명유리를 말아구(球)의 형태로 만든다.
- ⑨ 펀티파이프(Punty Pipe)를 붙여 분리시킨다.
- ⑩ 글로리홀에서 수차례 가열한 후 빨리 돌려 원심력에 의한 접시모양을 만든다.
- ⑪ 펀티파이프에서 분리하여 서냉가마에 넣는다.

[작품 4] 여인들의 기원(祈願)



18.5 × 20 × 80cm(좌, 우) / Blowing / 2004

[작품 5] 제기(祭器) - 신화시대

이 작품은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무속 신앙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상징적 매개체를 이미지화 한 것이다. 조형적 형태는 [작품 3]에서의 제기 형태를 확대시켜 만든 것으로서 이 작업을 시작할 때 본인은 제주도내 분포되어 있는 약 200 기 정도의 고인돌 형상에서 제기의 이미지를 착안하였다. 원시 고대시대에서는 자연을 향해 커다란 돌을 쌓아 고인돌이라는 상징적 매개체를 만들고 부(富)와 복(福) 그리고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고인돌에 암각화를 그려놓기도 하고 재물을 올려놓으면서 기원을 드리지 않았을까 한다. 즉 무속 민간신앙이 지배한 원시고대시대의 고인돌은 자연속에 전시되어 있는 제기의 모습이라는 모티브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 작품은 파라다이스 페인팅(Paradise Painting)과 그랄(Graal)기법을 같이 사용하여 유리와 유리사이에 이미지를 표현해 넣는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며, 기물의 윗부분인 유리접시 위에 제주(祭酒)를 담은 술잔을 올려놓았다.

- 제작방법 -

작품 4 와 동일함.

[작품 5] 제기(祭器) - 신화시대



93 × 65 × 131cm / Blowing / 2004

[작품 6, 7] 제기(祭器) - 신화,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

제주 뱀 상징 무속신화 속에서 인격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뱀은 삶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먹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자연히 물질의 풍요와도 연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뱀은 생명력과 다산의 이미지이다. 뱀은 허물을 벗고 알을 많이 낳는다. 이것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영원한 에너지와 의식을 상징한다. 뱀이 기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뱀의 혀를 보면 불꽃과 같은 이미지를 준다. 제주도의 옛날 사람들은 뱀의 형태와 움직임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했던 물과 불의 이미지를 연상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풍농(豐農)에 대한 강한 욕구로 뱀을 신격화하고 신앙함으로써 부(富)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 6]은 뱀이 바다에 떠 있는 제주도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통하여 뱀신이 멀리서 제주도의 풍작과 다산을 지켜주고 있는 이미지를 구상한 것이다. 기물의 윗부분인 접시모양은 보라색으로 처리하여 뱀신의 권능(權能)이 느껴지도록 표현한 것이다. [작품 7]은 뱀이 바다를 통하여 제주도로 들어와 무속신(巫俗神)으로 변화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금빛을 띤 자주색으로 처리한 기물과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황금색의 알 모양인 오브제는 옛날 제주인의 바램이었던 부(富)와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 제작방법 -

작품 4 와 동일함.

[작품 6] 제기(祭器) - 신화,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 I



23 × 23 × 36cm / Blowing / 2004

[작품 7] 제기(祭器) - 신화,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 II



23 × 23 × 38cm / Blowing / 2004

[작품 8] 제기(祭器) - 풍요(豊饒)의 수호자

사각형처럼 보이는 것들은 제주의 돌담을 모티브로 기호화한 이미지를 그려 넣었다. 이 이미지들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명승 10 곳을 그린 영주 십경도 중의 하나인 영곡(瀛谷, 한라산 중턱인 영실)에 있는 오백장군 기암절벽을 의인화한 이미지를 참고로 하였다. 뱀이 돌담에 스며드는 것처럼 그려 제주도 여인의 생활에 신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안에 행운을 부르는 개인적인 취향의 기호를 추가하여 고대인들의 풍작과 다산을 기원하는 심정에 동화(同和)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제작방법 -

작품 4 와 동일함.

[작품 8] 제기(祭器) - 풍요(豊饒)의 수호자



23 × 23 × 36cm / Blowing / 2004

[작품 9] 제기(祭器)) - 대지의 여신

제주도를 끌어 앉고 있는 이는 여신일까? 여인일까? 꼭 누구라고 규정 짓고 싶지 않다. 제주의 땅을 지켜나갔던 이들을 총칭하고 싶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거친 자연환경속에서도 삶을 지켜온 제주인과 그 제주인을 지켜주는 뱀신들의 이미지를 민화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단순하고 투박한 붓터치의 표현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제주도만의 자유로움과 강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의 기본적인 형태는 앞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제기 형상을 따랐으며, 윗 부분의 알 모양의 오브제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을 지닌 제주여인과 제주도를 지키는 여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연출한 것이다.

- 제작방법 -

작품 4 와 동일함.

[작품 9] 제기(祭器) - 대지의 여신



19 × 19 × 37cm / Blowing / 2004

[작품 10, 11] 제기(祭器)) - 다산과 풍작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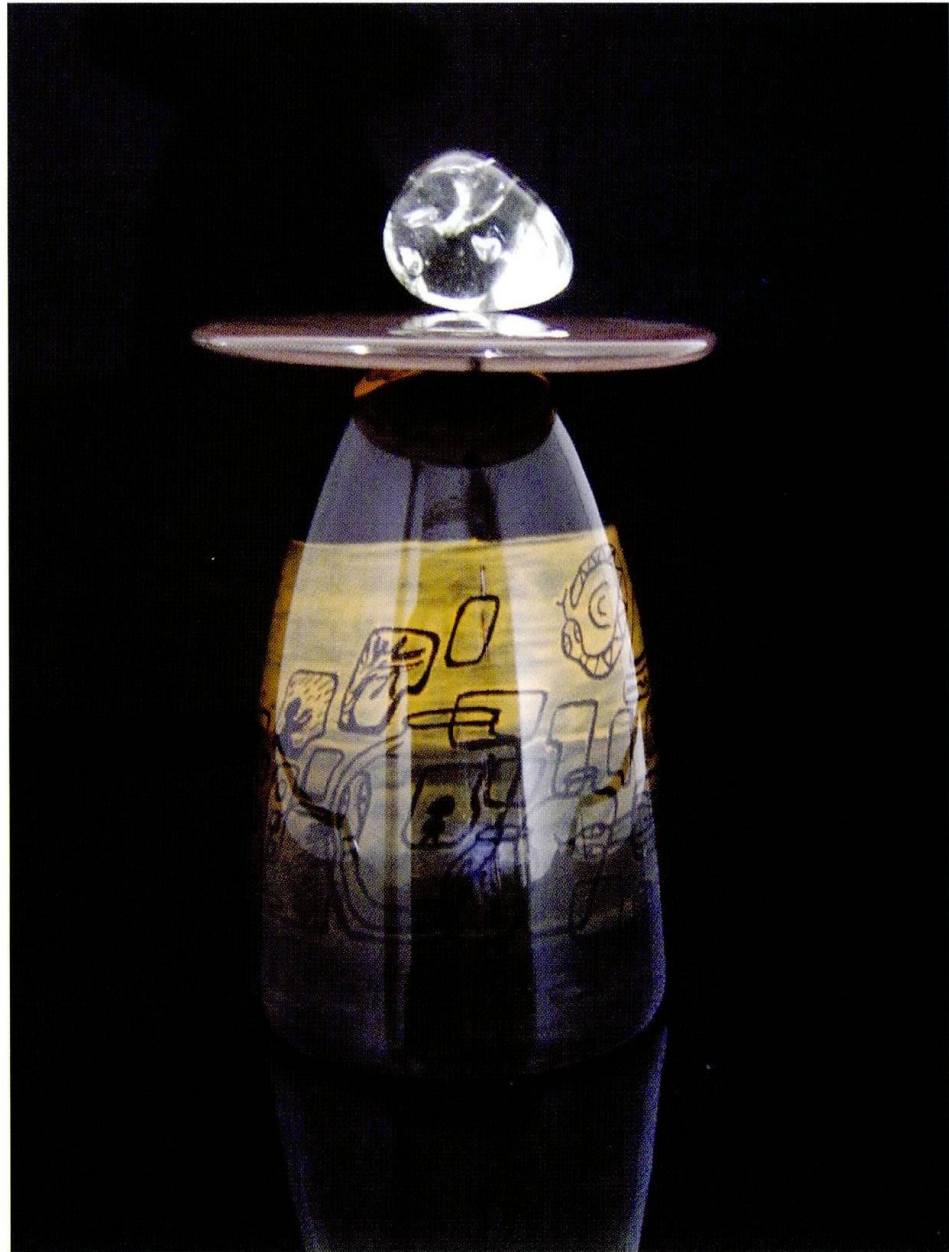
[작품 10]은 고팡(庫房, 제주도말로 곡간이라는 뜻임)의 신이며 부(富)를 가져다 주는 사신(蛇神)인 ‘안칠성’과 뒤편에 모시는 곡물을 지켜주는 사신(蛇神)인 ‘밖칠성’이 생활전반에 스며들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의 윗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오브제는 생명의 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유리덩어리안에 기포가 생기게 제작하여 생명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동 작품은 이미 만들어진 유리구에 갈색계통의 파라다이스 페인트를 그라데이션(Gradation)기법으로 칠하고, 칠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뽀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면서 그림을 표현하여 유리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11]는 제기형상을 통하여 뱀신을 모신 당(堂)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기에 그려진 사각형들은 대지(大地)를 상징하는 모양이면서, 또한 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문(門)을 상징하는 모양이기도 한 것이다. 당나무와 그 옆에 스며들듯이 그려져 있는 뱀신은 땅을 나타내는 갈색에서 물을 나타내는 푸른색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는데, 이는 뱀신들이 제주도의 물과 땅을 잘 다스려 제주인들에게 풍작을 안겨다 주도록 하는 본인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당(堂)나뭇가지에 걸려진 천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본 작품에서도 제기 위에 놓여진 유리로 만든 나뭇가지에 빨강, 노랑, 초록 색깔의 천을 사용하여 오브제를 만들었다.

- 제작방법 -

작품 4 와 동일함.

[작품 10] 제기(祭器) - 다산의 바람



18 × 18 × 34cm / Blowing / 2004

[작품 11] 제기(祭器) - 풍작의 바람



46 × 19 × 32cm / Blowing / 2004

[작품 12, 13] 제기(祭器)) - 자연과 인간의 매개자

본 작품은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와 전설속에서 나오는 뱀을 주인공으로 삼아 뱀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뱀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보는 이들에게 뱀의 이미지가 주는 상징적 의미를 각자가 상상하게끔 하고자 함이다. 즉 이 작품을 대하는 이들에게 정서적 즐거움과 관심을 마음속에 집어 넣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화산이 폭발하여 탄생한 섬인 제주도는 바람과 돌은 많고 물이 부족하여 인간이 농작을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러한 섬지방이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오는 인간의 한계를 무속신앙을 통하여 해결하려 했고, 그 무속신앙속에서 뱀신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상징적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전설과 무속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일상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을 초월적인 신의 힘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을 것이며, 이러한 것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표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신앙의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뱀 상징물을 보면서 무엇을 기원하게 될까?

- 제작방법 -

작품 4 와 동일함.

[작품 12] 제기(祭器) - 자연과 인간의 매개자 I



17×17×32cm / Blowing / 2004

[작품 13] 제기(祭器) - 자연과 인간의 매개자 II



20 × 20 × 57cm / Blowing / 2004

[작품 14] 제기(祭器) - 섬의 전설

뱀 상징 무속신화와 전설은 제주도내에서 아주 과거로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이다. 과거에도 있었던 이야기를 본인은 현재에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이야기하고 싶다. 과거이었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 현재이지만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왜일까? 이 작품은 본인이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짧은 이야기들을 이미지화 하여 한 부분에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들이 동심의 입장에서 뱀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고 상상하도록 한 것이다.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속신화의 이야기를 동화적으로 시각화시킴으로써 작품을 만든 사람과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부(富)와 복(福)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 제작방법 -

작품 4 와 동일함.

[작품 14] 제기(祭器) - 섬의 전설



21 × 21 × 27cm / Blowing / 2004

[작품 15] 제기(祭器) - 신화의 섬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섬이다. 이로 인하여 제주도에 서는 화산이 폭발할 때 급속히 기포를 발생하며 생성된 용암이 잘게 부수어져 만들어진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암재(火山岩滓)인 스코리아(scoria)가 많은데 이는 제주도내의 330 여개의 기생화산(寄生火山) 주변에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물질이다. 제주도에서는 흔히 “송이”라고 불리운다. 제주도의 스코리아는 유기불순물(有機不純物)의 함량이 매우 적은 편이어서 본인은 스코리아를 유리와 혼합하여 조형작업을 하였다. 블로잉작업 때 스코리아와 유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크랙(Crack)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코리아를 모래처럼 잘게 부수어서 소다 석회 유리와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화산암재인 스코리아가 많은 제주도의 자연속에 뱀신과 뱀이 인격화된 여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형상을 통하여 제주도 뱀 상징 무속신화가 지니고 있는 토속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주도 뱀 신앙의 특징은 신화나 설화의 내용을 통하여 뱀을 인격화하고 상징화시켰다는 점과 뱀신이 주로 여신 또는 할망(할머니)로 모셔짐으로써 뱀신을 모시는 지역의 여자가 혼인을 하면 뱀신도 따라다닌다는 속설로 인하여 뱀 신앙이 제주도내 곳곳에 퍼진 토속신앙이라는 점인데, 제주도내 땅속에서만 대량으로 존재하는 화산암재인 스코리아를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제주도 뱀 상징 무속신화의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제기의 윗부분을 구성하는 접시형태에만 넣었다.

화산암재(火山岩滓)인 스킨리아(scoria)를 이용한 블로잉 제작방법 -

- ① 블로우파이프(Blow pipe)끝을 글로리홀(Glory Hole)에서 가열한다.
- ② 용해로(Furnance)에서 액화상태인 투명유리를 말고 불어서 유리구를 만든다.
- ③ 잘게 부셔 놓은 스킨리아 알갱이와 검정색 유리가루(Kugler Powder. K-95)를 블로우파이프에 있는 투명유리구 위에 묻힌다.
- ④ ②번과 ③번을 두번 더 반복한다.
- ⑤ 둥근 유리구를 기다란 구(球)의 형태로 만든다.
- ⑥ 펀티파이프(Punty Pipe)로 분리시킨다.
- ⑦ 열처리 하면서 V자 형태의 기(器)를 만든다.
- ⑧ 펀티파이프(Punty Pipe)에서 분리하여 서냉가마에서 서냉한다.

[작품 15] 제기(祭器) - 신화의 섬



17×17×29cm(좌, 우), 19×19×31cm(가운데) / Blowing / 2004

[전체 작품 설치]



IV. 결론

본 연구작업은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 속에 담겨진 세계를 투명하고 무정형고체(Amorphous Solid)의 특성을 지닌 유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조형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제주섬 토속문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에게 알리고 그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연구 중점을 두었다.

뱀 상징 무속신화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신화는 무속과 결합되어 제주민의 민간신앙의 근거가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제주는 ‘당(堂) 오백, 절 오백’이라는 전래 표현이 있다. 해방 후 미신타파와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전통 문화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있었다. 서구에서는 그들의 신화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을 때 제주의 신화는 편협된 시각으로 미신 또는 비과학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관심에서 사라지고 심지어는 매도가 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무속과 함께 전래되고 있는 신화는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만큼 상징적인 의미로써 보호되고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제주 신화는 문화자원의 하나로 경쟁력을 얻게 되어 그리스로마 신화와 같이 친숙하고 대중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작품속에 담아내기 위하여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난 제주도의 신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활동은 앞으로 본인의 작업전개에 있어 많은 예술적 영감과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제주도의 전래 무속신화 뿐만 아니라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간신화나 풍습의 세계를 유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데이비드 폰태너, 최승자(역),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1998
진 구퍼, 이윤기(역), <그림으로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까치글방, 2000
멜리사 리틀필드 애플게이트, 최용훈(역), <벽화로 보는 이집트 신화>, 해바라기, 2001
권삼윤, <문명은 디자인이다>, 김영사, 2001
빈철구, <신들의 암호>, 넥서스 BOOKS, 2001
강원도 삼척시청, <삼척시지>, 조양출판사, 1997
제주국립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김기라, 유리공예입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3

□ 논문 및 정기간행물

- 탁명환, 제주 사신(蛇神)신앙에 대한 小考, 한국문화인류학 제 10 집, 1978
진성기, 제주도의 뱀신앙, 한국문화인류학 제 10 집, 1978
진성기,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한국문화인류학 제 17 집, 1985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9
양영수, <제주신화와 중국의 비교연구>, 제주도연구 제 18 집, 2000
김영덕, 제주도의 사신신앙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2
국립중앙박물관, <이달의문화재>, 2001.2
허민자, 제주도 스코리아를 이용한 세라믹 타일의 연구, 1999

□ 참고 인터넷사이트

- <http://www.yesu.kimc.net/30baem.htm> (성경의 뱀 메시지, 심상필, 2001)
http://www.minfortune.net/minsok/c_snake2.html
<http://ftp.buddhism.org/Korean/장경각/포교/포교 14.HWP>
http://www.ugasa.net/ugasa_study/06_0203.htm

ABSTRACT

A Study on Glass Arts focusing on the Snake Symbol Myth in Cheju Island

Yang, Yoon Young

Major in Glass Ar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Ki Ra

There is a certain myth representing identity and desires of a specific society in myths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ne of them is the snake myth containing snake worship (“the Snake Symbol Myth”), which has been inherited in Jeju Island along with such worship as ‘Chilsung Worship’ and ‘Tosandang Snake Worship’. The Snake Symbol Myth is original in that the snake was impersonated and the myth has been handed down with worship ceremony, one type of folk belief wishing for wealth and fortun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nake Symbol Myth in Jeju Island and moulded and expressed the image obtained from the study with glass.

This study reviewed the meanings of a snak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thropology and various symbols of a snake in the Orient and the Occident. In addition, this study contained analyzing the typical snake myth in Jeju Island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s thereof.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e researcher inquired into differences and/or particularities from other snake symbol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made works of art representing the images of dishes and candlestands used in religious services, one of items used in 'Dang' where worship ceremony is held in Jeju Island, with glass characterized by transparency and amorphous solid. The researcher intended to introduce images of local folk belief praying for wealth, fortune and fecundity in this study.

In the expression of study work, Graal method, one of Blowing methods, that is engraving images on the surface of glass mould and then reheating and overlaying transparent glass on that images, and Paradise Painting method, that is drawing images on coloring and transparent glass mould using enamel paint. For some work, the researcher tried Blowing method using Scoria, ash of lava in Jeju Is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one of Jeju Island local myths becomes popular culture content as cultural resources. And this study will be the first stage to introduce invisible world of not only local myths but also traditional customs containing cultural inheritance with glass hereafter.